

한국칸트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칸트와 윤리학

일시: 2024년 4월 6일(토), 14:30~17:40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311호

한국칸트학회 회원 선생님들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한국칸트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칸트와 윤리학'이라는 주제로 서강대학교 철학과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각 발표의 초록도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회원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장 : 김한라

부회장 : 이진오, 이원봉

편집이사 : 강지영

연구이사 : 김형주

총무이사 : 오창환

학술교류이사 : 백승환

편집간사 : 정선아

총무간사 : 신창화(010-3834-7382)

회비계좌 : 우체국 501072-02-293482 오창환

한국칸트학회 홈페이지 : <http://www.kantgesellschaft.co.kr>

한국칸트학회(편집부 & 총무부) 이메일 : kantsarag@naver.com

<한국칸트학회 연회비 안내>

전임: 5만원 / 비전임: 2만원

한국칸트학회는 다른 외부 지원금 없이 학회 회원 선생님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로 학회 운영에 힘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칸트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칸트와 윤리학

- 일시: 2024년 4월 6일(토), 14:30~17:40
-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311호
- 주최: 한국칸트학회
- 주관: 한국칸트학회, 서강대학교 철학과

	시 간	대회 내용	사 회
	14:30-14:40	개회 ◆ 개회사 : 김한라 (서강대학교)	
1부	[제1발표] 14:40-16:00	Reath's Kantian Constitutivism on the Authority of Morality ◆ 발표 : 이병덕 (성균관대학교) ◆ 토론 : 강지영 (서울시립대학교)	백승환 (강릉원주대 학교)
	16:00-16:10	휴 식	
2부	[제2발표] 16:10-17:30	생의학적 도덕 향상에 대한 칸트적 옹호 ◆ 발표 : 윤준식 (서울대학교) ◆ 토론 : 공병혜 (조선대학교)	
	17:30-17:40	기념촬영 및 폐회	

* 각 발표 당 발표시간은 50분, 토론 15분, 청중 질의응답 15분 내외로 배정되었습니다.

한국칸트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 <칸트와 윤리학> 발표 초록

[제1발표]

Reath's Kantian Constitutivism on the Authority of Morality

이병덕(성균관대학교 철학과)

Andrews Reath defends Kantian constitutivism about the authority of morality. On this constitutivist account, morality has normative authority over us, because the nature of rational volition is the source of the formal practical principle that authoritatively governs rational volition, and we have rational volitio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Reath's Kantian constitutivism fails to explain the authority of morality. For this goal, I argue mainly for two things. First, on Reath's view, Kant's thesis of autonomy of the will is a key component of Kant's account of the authority of morality. And he interprets this thesis through the idea that the nature of rational volition is the source of the formal practical principle that authoritatively governs rational volition. But this autonomy is better understood through the idea that we have no other way but to defend the formal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on the basis of reasons, and this idea by itself falls short in explaining the authority of morality. Second, Reath holds that the Categorical Imperative serves as the internal norm which authoritatively governs rational volition. But the guiding role of categorical imperatives is better understood from an intersubjective or social perspective, rather than from an internalist or a first-person perspective. In particular, we can engage in the social division of labor regarding what we are obliged to follow as moral norms.

[제2발표]

생의학적 도덕 향상에 대한 칸트적 옹호

윤준식(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생의학적 도덕 향상(biomedical moral enhancement, BME)’은 생의학적 개입을 통한 도덕 관련 기능의 부분적 개선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이 미래에 개발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기적 목적의 향상 기술에 비해 도덕적 목적을 지닌 BME 기술의 자발적 사용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 그런데 자유 및 자율성의 관점에서 BME와 같은 외적 수단이 인간의 도덕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으며, 많은 경우 칸트 윤리학을 그 근거로 삼는다. 반면 마찬가지로 칸트의 논의에 기대어 자발적 BME의 윤리적 허용 가능성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칸트적 관점에서 도덕적 목적 아래 행위자의 자율성 실현 과정에 개입하는 BME의 자발적 사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1장에서는 논의의 배경이 되는 BME 개념 및 논쟁의 구도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2장에서는 칸트적 관점에서 BME를 비판 및 옹호하는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칸트의 도덕 심리학적 논의에 근거하여, 칸트가 자율성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주체의 의지적 노력과 더불어 주체 외적 요소의 긍정적인 영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음을 보인다. 그리고 도덕적 진보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칸트의 문화 개념이 그 정의(定意)상 과학 기술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BME 기술이 칸트의 관점에서 자율성의 더 나은 실현에 기여하는 ‘훈육의 문화’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BME 기술의 개발 및 자발적 사용은 칸트적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